

챌린지 4위서 클래식 승격 기적 이룬 광주FC 정원주 대표



“선수들이 라면 먹고 일으킨 승격기적 시민들은 구름 관중의 기적 보여 달라”

프로축구 2부리그인 챌린지 4위에서 1부리그인 클래식 승격의 기적을 이룬 정원주 광주 FC 대표이사(중흥건설 사장)는 지난 13일 “월름에서 라면을 끓여먹으며 기적을 일으킨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감격의 눈시울을 보였다. 정 대표는 “선수들이 기적을 일군 만큼 이번엔 광주시와 시민들이 그라운드를 구름처럼 찾아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호소했다.

- 챌린지리그 4위에서 클래식리그 승격까지 이뤘다. 격정의 4경기(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승강플레이오프 1·2차전)를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라운드에서 나는 대표가 아니다. 12번째 선수 ‘주전자’다. 선수들의 뒷바라지가 내 할 일이다. 그러다보니 선수들도 나를 형처럼, 삼촌처럼 따른다.

- 광주FC 대표이사로서 1년 반을 보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

▲어지러진 구단을 정비하고, 그 후엔 외풍을 막아냈다. 지난해 광주 FC는 경영진과 감독, 감독과 코칭스태프, 코칭스태프와 선수, 선수와 프런트, 프런트와 경영진 등 모두가 얽히고 꼬였다. 꼬인 실타래를 풀고 구단을 일신했다. 그리고 안정을 찾았다. 그 열매가 1부리그 승격이다. 계류

보였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 데러오지 못하고 있다. 전지훈련도 못 갈 형편이다. 선수들 연봉도 올려줘야 한다. 최소 100억원은 있어야 하는데 걱정이다.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때문에 연습할 구장도 없다. 상반기엔 광주 경기가 거의 없어 팬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 다행히 구단주인 윤창현 시장이 직접 발로 뛰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뛰겠다.

- 광주FC를 보는 시선이 우호적으로 변전됐다. 이 기회를 이용, 마케팅을 강화해 팬들을 확보하고 열기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여론이다. 웰 준비하고 있나.

▲어려운 여건이지만 ‘시민밀착형 축구’를 하겠다. 선수·프런트 모두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 결으로 다가가겠다. 잘 생긴 (임)선영이·(김)호남이를 앞세워 팬들을 끌어모으겠다. 내년 봄 개막에 맞춰 카퍼레이드를 하는 등 프로축구 봄 초성을 기획 중이다. 광주시민들은 시민공모주의의 기적을 만들어달라.

- 승리 수당·특별 보너스를 사비를 털어 지원한다는데.

▲구단이 어렵다.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할 수 없다. 선수는 사기 문제라고 한다. 넉넉하진 않지만 매 경기 이기면 300만원씩의 승리 수당을, 승강플레이오프 특별보너스로 7000만원을 사비로 내놔다. 남기일 감독도 최근 브라질 선수 영입을 위한 스카우터 비용으로 2000만원을 내놔다. 금호·광주은행·광주신세계 등 지역 대표 기업과 한국전력 등 혁신도시 기업들이 많이 도와달라.

- 내년 시즌 구상 및 목표는.

▲6위권 내에 드는 게 목표다.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다. 아니 내야만 한다. 꽃미남인 임선영·김호남·파비오 등이 잘 뛰면 구름 관중이 밀려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선수들이 시민들을 많이 찾아가겠다. 예뻐해달라.

- 광주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광주 FC는 산고를 거쳐 다시 태어났다. 그라운드에 발길을 끊을 정도의 질책을 받았다. 시민들이 좋아하는 프로축구단으로 거듭나겠다. 축구를 통해 광주시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달하겠다. 그라운드에서 함께 함성 지르자.

/박정욱기자 jwpark@·사진=최현배기자 choi@

선수단-구단 믿음·하나됨으로 뭉쳐 쓴 반전 드라마

사재 7000만원 털어 특별 보너스 지원

“시민밀착형 축구로 6위 목표…예산 확보 발로 뛰겠다”

▲선수들이 기적을 일궜다.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기쁨을 함께 했다. 현장(그라운드)에 가면 무엇을 해야 할 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지 않던가. 시민구단인 광주 FC는 광주시민들의 것이다. 꼭 현장을 찾아달라.

- 승격 기대했다.

▲격정이 기대로 바뀌었다. 처음엔 생각도 못했다. 챌린지 4강에 들어 준플레이오프를 뛰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고양 Hi FC와의 경기에서 4위를 확정짓자 ‘한 번 해보자’는 기대감이 생겼다. 3위 강원만 이기면 2위 안산전은 자신 있었다. 안산 경찰청은 전역시즌이라는 특수성으로 조직력·정신력에 구멍이 보였다. 생각대로 3-1로 승리했다. 승강플레이오프에서 맞붙은 경남은 직전 경기에서 상무에 3-1로 졌었다. 전력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으로 승리를 확신했다.

- 기적의 원동력은.

▲‘믿음’과 ‘하나됨’이었다. 감독과 선수, 경영진이 똘똘 뭉쳐 반전의 드라마를 썼다. 승격을 확정짓자 감독·선수 모두 나를 끌어안고 울더라. 서럽고 응어리졌던 마음을 이날 눈물로 녹였다.

이었던 광주 FC가 이제 광주시민의 희망이 됐다.

- 가장 보람된 때는?

▲첫째도 승격, 둘째도 승격, 셋째도 승격이다. ‘믿고 기다려줘 감사하다’는 남기일 감독의 한마디, ‘축여가는 축구를 살렸다’는 축구인들의 격려가 보람이 됐다.

- 힘들고 고민스러웠던 때도 있었을텐데.

▲여범구 감독이 떠날 때였다. 떠나보내는 마음도 아팠지만 남기일 대행으로 뛸까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다. 하지만 믿기로 했고, 믿을 바엔 철저히 믿기로 했다. 또 하나는 가난한 살림이다. 운영비가 없어 이승기(전북)·김동성(성남) 등 스타들을 팔아 구단을 운영했다.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선수층이 얇아졌다. 하지만 이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나마 위안이 됐다.

- 승격은 됐지만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듯하다. 운영 예산이 가장 고민스러울텐데.

▲내년엔 더 어렵다.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연습할 구장도 없다. 내년 1부리그에서 뛰어야 하는 만큼 스트라이커 보강이 절실하다. 선수는

슈틸리케, 마지막 옥석 가리기

21일까지 제주서 아시안컵 대비 전훈…22일 엔트리 발표



슈틸리케호(號)가 2015 호주 아시안컵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한다.

율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5일부터 21일까지 제주 서귀포에서 아시안컵에 대비한 전지훈련을 치른다.

K리그 소속을 중심으로 일본 J리그와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는 선수 28명이 슈틸리케 감독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다. 시즌이 한창인 유럽파와 중동파는 참가하지 않는다.

슈틸리케 감독은 내달 9일 열리는 아시안컵에 대비해 지난 4일부터 4차례 평가전을 치르면서 ‘옥석 가리기’에 몰두했다. 이 과정에서 슈틸리케호는 대강의 골격을 드러냈지만 아직 ‘빈 자리’는 남아있다.

지난달 중동 원정 평가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깜짝 발탁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던 슈틸리케 감독은 이번 전훈 대표 명단을 발표하면서 “(최종 명단에서) 깜짝 발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상을 입은 ‘원톱’ 자원인 이동국(전북)과 김신욱(울산)의 아시안컵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생긴 변화로 보인다.

공격 자원으로 선발된 이종호(전남), 강수일(포항), 이정협(상주), 이용재(V-바렌 나가사키), 황의조(성남)에게는 이번 전훈이 호주행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이자 절호의 기회다.

이번 전훈은 아시안컵에 대비해 열리지만 내년 7월 중국에서 열리는 2015 동아시아컵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다. 동아시아컵에는 해외파 선수들을 차출할 수 없다.

K리그 선수들에게는 꼭 아시안컵에 출전하지 못하더라도 2018 러시아 월드컵 예선을 준비해야 하는 슈틸리케 감독에게서 ‘즉시 전력감’으로 눈도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전훈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자체 연습 경기가 열려 28명의 대국전사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 맞붙는다. 실전을 방불케하는 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훈이 끝나면 슈틸리케 감독은 22일께 아시안컵에 나설 23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한다. 27일에는 55년만의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꿈을 안고 호주로 출국한다.

/연합뉴스

한파 녹여버린 홍명보 자선축구

30여명 스타 선수 참가…12번째 소아암 환자 치료비 전달

12회째를 맞은 ‘홍명보장학재단 자선 축구’가 올해도 연말 한파를 녹였다.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하나은행과 함께 하는 셰어 더 드림 풋볼 매치 2014’에는 사랑팀과 희망팀으로 편을 나눈 30명의 ‘스타급 선수’들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발산했다.

사랑팀에는 K리그에서 활약하는 스타들이 포진했다. 김승규(울산), 정성룡(수원), 김승태·강수일(이상 포항), 김진규·김주영·윤일록(서울) 등이 출전했다.

여자 대표팀의 권하늘(부산 상무), 전가을(현대 제철), 장애인 국가대표 최범준(뇌성마비), 노영석(지적장애), 배우 공형진도 가세했다.

이에 맞선 희망팀에는 시즌을 마친 해외파가 주를 이뤘다.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박종우·장현수(이상 광주 푸리), 김영권(광저우 헝다), 이종호(전남) 등이 나왔다. 여자 대표팀의 지소연(헬시 레이디스), 심사연(고양대교), 장애인 국가대표 김중훈, 진병석, 개그맨 서경석도 그라운드를 빛냈다.

사랑팀과 희망팀의 지휘봉은 각각 안정환 축구 해설위원과 국내 최고령 현역선수 김병지(전남)가 잡았다.

홍명보 전 한국 국가대표 감독이 홍명보장학재단 이사장으로서 개최하는 연말 자선 축구는 2003년에 시작돼 올해로 12년째를 맞았다. 홍 이사장은 자선축구의 수익금을 소아암 환자들의 치료비로 전달하고 있다.



13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홍명보장학재단 주최로 열린 ‘셰어 더 드림 풋볼 매치 2014’ 자선 풋살 경기에 앞서 안정환(왼쪽부터), 홍명보, 김병지가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전 선수들은 때로는 현란한 플레이,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실수, 즐거운 골 세리머니로 관중을 즐겁게 했다. 이날 경기에는 분야별 장애인 축구 선수들이 동참해 열기를 더했다.

한국 지적장애 대표팀은 출전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올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지적장애 월드컵 출전이 좌절됐다. 홍 이사장은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장애인 선수들을 초대해 모두가 하나 되는

무대를 만들려고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국가대표들은 마지막 쿼터에 출전해 비장애인 선수들과 함께 뛰었다. 선수들은 골 세리머니 때 각자 한 글자씩 적어넣은 티셔츠를 내보이며 ‘편견의 비움은 능력의 채움입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만들었다.

이날 경기에서는 희망팀이 사랑팀을 12-9로 이겼다.

/연합뉴스